

IMF시대를 우리가 극복한다.

대망의 1998년도를 맞이하여 친애하는 통신 위성·우주산업연구회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난 12월10일 개최된 제7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연구회의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책무를 맡게 되는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일뿐 아니라 그 소임의 막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회의 설립취지와 열성적인 회원 여러분의 의욕에 비추어 재정적으로나 활동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이충웅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이 합심일체가 되어 그 동안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에 대하여 그 뜻을 높이 새기며 새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사회는 사회 구조와 생활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정보사회에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갖고 접근하느냐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과거 몇 년 동안 지속적인 고속 경제 성장에 힘입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정책 의지를 결집하여 왔으며, 선진사회의 조기 진입을 위한 방안으로써 정보화사회의 기반 구축을 정책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나라가 과거의 경제 성장을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받



전하여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사회의 논리에 부합하는 형태의 구조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 또한 정보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정보화사회의 조기 실현과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위성사업 활성화와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확보를 추진하는데 주력함과 아울러 민간기업 위성사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 규제 완화, 확보된 위성사업용 궤도/주파수의 조기 분배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하여 기술 개발과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국 위성사업에도 합작 투자를 지원하는 등 위성통신·방송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일컫는 21세기가 목전에 다가왔으며, 작년 2월 WTO 기본통신 협상에 이어 12월 IMF 협상이 체결됨으로써 시장 개방의 문제는 외국 사업자와 자본이 국내 시장을 밀물처럼 잠식해올 것이라는 예상이 급속하게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정보화사회를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에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전문인들은 기술보국의 응지와 선진국 조기 진입의 지상 목표 실현을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처방에 지혜를 함께 모아서 국가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 연구회는 우리 나라 위성통신·방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주과학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고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연구하고 정진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빛나는 한해가 되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회장 김 정 기